

# 감산 선언에 주가 바닥 설까지... 삼성전자株, 기지가 커나



감산규모 최대 25%까지 확대 관측  
삼성전자 주가 4거래일 연속 상승  
외국인, 지난달 3조1364억 매수  
증권사 목표주가 최대 8만5000원

삼성전자가 14년 만에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감산' 선언 이후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증권사들도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 삼성전자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31% 오른 6만57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7일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4조5800억원의 적자를 기록

〈지난 3개월간 삼성전자 주가 및 거래량 변화 추이〉 /한국거래소



했다고 발표했으나 당일 증가는 6만 4600원으로 전일 대비 0.78%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다음날인 28일에도 1.39%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가 지난 27일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감산을 공식화하고 반도체 업체

들의 감산 경쟁에 가담하자, 외국인들은 지난달에 삼성전자 주식을 3조1364억원을 사들이는 등 강한 매수세를 보여 주가 상승에 탄력이 받고 있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컨퍼런스콜에서 "중장기 수요 대응에 충분한 물량을 보유한 구형 제품을 중

심으로 감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생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시장 수요에 따라 감산 폭을 추가 조정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재고량이 충분한 DR4 등 레거시(구형) 제품을 중심으로 감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감산 규모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없었으나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감산 규모를 기존 생산량의 최대 25%까지 확대할 것으로 관측했다.

위반복 대신증권 연구원은 "컨퍼런스콜에서 구체적인 감산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점은 아쉬우나, 2분기부터 재고가 줄어든다고 언급했으며, 경쟁사 대비 출하량 가이던스가 낮음에도 재고가 감소한다는 점은 상반기 중 강도 높은 감산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삼성전자의 감산에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친 것으로 보고 하반기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증권사들도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높이는 등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K

B증권은 기존 8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상향했고, 하이투자증권은 기존 8만 3400원에서 8만4000원으로 높였다. 유진투자증권도 기존 7만8000원에서 8만 2000원으로 목표주가를 바꿨다.

박유익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이 올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회복 및 가격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2분기를 저점으로 한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전망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당분간 메모리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강보합세를 보인 뒤, DRAM의 업황 개선 시그널(또는 주가 반등 시그널)이 목격될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 말과 3분기 초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키움증권, '명예훼손 혐의' 라덕연 고소

(H투자자문 대표)

SG발 주가폭락, 책임공방 소송전  
"라덕연, 자신의 책임 희석 위해  
김익래 회장 위법한 것 처럼 호도"

키움증권이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2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라 대표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회장을 주가 폭락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SG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소송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김 회장과 키움증권 측은 고소장에서 "해당 주식 매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했다"며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된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소인 라덕연도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덕연은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마치 김익래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모종의 세력과 연계하여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위 주식의 가격을 폭락시켰다는 것은 그룹 총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당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라덕연 발언은 시간으로 자동실행되는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면서 "키움증권이 주가조작을 하거나 주가조작세력과 연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고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키움증권 측은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라 대표는 김 회장이 주식 상승세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릴 필요가 생겨 시세 조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사태의 배후로 지목했다. 라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회장이 (폭락 사태를 유발

했다고 100% 확신하고 있다"며 "일단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하나 넣고, (검찰·금융당국에) 진정서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김 회장이 주가조작 세력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지분을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회장은 SG사태 발생전인 지난달 20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다우 데이터 주식 140만주(3.65%)를 주당 4만3245원에 처분해 605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매각 주관은 해외 투자은행(IB)에서 담당했으며, 김 회장 지분은 외국계 펀드·기금이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딜 이후 2거래일 만인 지난 달 24일 다우데이터 주가는 이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환)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꾸려, 관련자 10여명을 출국 금지 시키는 등 수사에 나서고 있다. /원관희 기자



'VL르웨스트 투시도'

/롯데건설

## 하우스키퍼부터 스파까지 '실버타운' 진화

서울 광진구 '더 클래식 500' 호텔식 주거서비스... AV룸 등 갖춰  
부산 기장군 'VL라우어'  
맞춤형 건강식단, 24시간 컨시어지  
서울 마곡 'VL르웨스트'  
롯데호텔의 고품격 서비스 적용

베이비붐 세대가 주축인 뉴 시니어(New senior)를 타깃으로 실버타운 시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단지 내 조식 및 청소, 빨래 등을 해주는 호텔식 고급 컨시어지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는 모습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 고급 실버타운으로 꼽히는 광진구의 '더 클래식 500'에는 하우스키퍼 서비스부터 발레파킹, 우편 택배 서비스 등 호텔식 주거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단지 내에는 스파나 골프연습장, AV룸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다수 들어섰다.

지난해 부산 기장군에서 분양한 'VL라우어'는 고령층 입주자를 위해 호텔 세프가 관리하는 맞춤형 건강 식단과 24시간 응대 가능한 컨시어지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단지의 전반적인 운영 지원은 해당 브랜드를 론칭한 롯데호텔이 직접 담당하는 만큼 보다 전문적인 주거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울마곡지구마이스 복합단지 내 분양 중인 롯데건설의 'VL르웨스트'에는 전문적인 컨시어지 서비스, 하우스키퍼 서비스 등 롯데호텔에서 누리던 다양한 고품격 서비스가 적용된다. 입주민 전용 창구를 통해 장시간 대기 없이 신속한 의료 케어가 가능하며, 단지 내 '보바스기념병원'이 위탁운영 예정인 건강관리센터에서 건강 관리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일원에서 분양 예정인 '더시그니 하우스청라'의 경우 스마트 위치를 이용한 건강관리 및 응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케어 등의 입주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뉴 시니어라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 고령층에 편입되면서,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실버타운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뉴 시니어는 현 노년층 세대와 달리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성향이 강한 데다 넉넉한 자산을 기반으로 자신을 위한 소비 및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면서 "앞으로 뉴 시니어가 증가함에 따라 편리한 주거서비스나 고급화 상품을 접목시킨 단지들이 실버타운 시장에서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환 기자 kdh@

## 서학개미, 일주일간 테슬라株 2700억 매수

해외주식 Click

2위 매수금액 884억, 3배 차이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와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 종목을 적극 순매수했다. 1분기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저가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테슬라의 주가는 16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반등을 기대한 서학개미들의 폭풍 매수가 이어졌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

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지난주(4월 24일~5월 1일)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를 약 2700억원 순매수했다. 이는 2위였던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배 ETF(SOXL)의 순매수 금액 884억과도 약 3배 가량의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다.

테슬라는 지난달 19일 부진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 하락세를 이어왔다. 이날부터 일주일간 낙폭은 약 15%에 달한다. 서학개미들은 이 시기를 단기 바닥의 기회로 보고 매수에 돌입한 모습이다. IRA 수혜주에 따른 강세도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IRA 발표

가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온전한 수혜 대상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일일 성과 중 1.5배를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볼 1.5배 주식(TSL)도 2333만달러(약 312억원) 어치 순매수하면서 3위에 안착했다.

서학개미들의 기회주의 매수는 반도체주에서도 돋보였다. 2위인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배 ETF는 ICE 반도체지수의 일간 수익률 3배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해당 종목의 주가는 4주째 하락세를 타며 20.8% 가까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서학개미들은 주가가 하락할수록 반등을 노리고 순매수 비중을 늘리는 모습이다. /신하은 기자 godhe@